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자기유능감 및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

박순희
동신대학교

Effects of an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on Self-Efficacy and Conflict Coping Strategies in Marriage Migrant Women

Sun-Hee Park
D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을 향상하고, 부부 간 갈등해결방법 습득과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A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2년 이상인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1명을 무선 표집으로 배치하고, 총 8회에 걸쳐 개입하였다. 사전검사는 1회 차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지 한 달 후에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유능감과 갈등해결방식에 효과가 있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성공 경험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주여성의 가족 및 사회 적응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자기유능감, 갈등대처방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improve self-efficacy, lear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establish close family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of the program were limited to marriage migrant women residing in A City who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two years. 30 women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women for the control group were randomly sampled. Eight sessions were offered. A pre-test was conducted in the first session and a post-test was done one month after the program was finished. The results of the program sugges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higher effect on self-efficacy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than the control group. The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for marriage migrant women conducted in this study aims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recover confidence and actively establish happy marital and family relationship by providing an opportunity to make success experience. Moreover, the program is intended to be applied to the field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family and social adjustment in marriage migrant women.

Key Words : Marriage migrant women,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Self-efficacy, Conflict coping strategies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5308)

Received 22 August 2016, Revised 19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Sun-Hee, Park(Dongshin University),

E-mail: sunny681127@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한국의 가족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개인의 삶의 질과 더불어 결혼의 당사자인 부부간의 친밀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가족관계 유지는 부부만의 노력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체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가족기능의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부간의 적응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고 [1], 부부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또한 상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29].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에 따라 가족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문화적 및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만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갈등의 원인이 복잡적이다. 부부갈등의 요인은 부부관계적 요인 외에 시댁 식구 및 형제자매 등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장적인 가족구조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원인과 성격차이, 경제적 원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2].

또 개인이 부부 갈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이나 극복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나 연쇄성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갈등 대처방식을 Berko et al. [27]의 연구에서는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 등으로 나누고 있고, 최규련의 연구에서는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및 행동표출, 외부도움 요청, 회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은 이성적 대처가 많고 [5, 6], 부인이 남편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부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남편보다 더 민감하고 반응적으로 지각하며 갈등을 해결해야 될 책임자로 자신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 4].

또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을 연구한 선행연구 [7]를 살펴보면, 갈등대처행동 중 소극적 회피를 가장 많이 하고, 갈등발생시 부정적인 감정행동표출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의사소통과 이성적 대처를 적게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갈등 대처행동을 적절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부갈등 시 결혼이주여성이 갈등대처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부부간의 친화력을 강화하고 부부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다문화가족관련 연구들[30, 31, 32, 33, 34]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결혼이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외국인 아내 혹은 며느리에게 한국의 문화를 습득하고 배우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진행되어 왔다 [8].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결혼생활에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들은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9, 10, 11, 15, 16]. 그러나 이 프로그램 또한 많은 부분이 한국어교육에 치중되어 있고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어, 사회통합의 지향에는 부합하기 어렵다. 물론 이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갈등과 혼란을 잠재우기에는 매우 역부족이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통합적 예술매체활용을 총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술, 음악, 무용, 놀이, 연극 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예술매체를 적용하는 통합적인 형태의 예술치료이다 [3, 13]. 통합예술치료는 언어적 중재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내담자의 문제나 장애를 자연스럽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이며, 예술활동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내면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표출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해준다 [2]. 많은 연구들에서 다양한 치료개입의 효과성을 밝히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담자의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치료기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합예술치료가 성행하고 있으며 [3], 다양한 예술 영역의 상호보완적인 치료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예술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고, 연구대상 또한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합예술치료는 심리치료에서 언어가 아닌 예술매체를 이용한 비언어적 표현이 심리치료를 돕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3]. 또 미술이나 음악, 무용 등 단일한 예술매체를 적용한 치료만이 이루어지다가, 단일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통합된 예술치료 형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통합예술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 3].

한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17, 18, 19] 예술치료의 효과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과 더불어 자기유능감(self-efficacy)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유능감은 개인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이다 [26]. 실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능감과 지각된 유능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지각된 유능감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이다.

통합예술치료 활동은 음악, 미술 재료 등을 선택하여 작품을 완성해내고 창조를 함으로써 성취감과 능력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통제감을 느낌으로써 자기유능감을 향상하고 한국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의 향상에 예술활동 등이 유용한 이유는 언어장벽에도 음악이나 미술매체들은 서로 상호교류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며, 때론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21].

일반적으로 통합예술치료는 음악치료와 미술치료 등이 통합적으로 진행되며 무용동작치료에서의 몸을 움직이는 신체활동이 동반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예술 작업의 과정 속에서 감춰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치유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신체와 심리의 통합을 이루고, 다양한 예술 활동으로 방어적 태도를 감소시키고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통합예술치료는 구

성원과 함께 작품활동을 하여 타인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 내에서 규칙과 질서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유능성 향상과 부부갈등 감소를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유능감 및 갈등대처방식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자기유능감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갈등해결방식에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모집하고, 예비뽑기를 통해 무선표집하여 30명을 실험집단으로, 31명을 통제집단으로 배치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중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석한 1명을 제외하였고, 매 회기별로 2시간씩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번의 사후만남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 대상자는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으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¹⁾ 한국어 능력이 생활언어가 가능 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에게 사전·사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는 프로그램 첫 회기에 이루어졌으며, 사후조사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 한 달 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공식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사후만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번의 추후만담까지 포함시켜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각 회기별 프로그램의 리더 1인과, 상담전공 박사과정 1인과

1) 선행 연구들[35, 36]에서 연구 대상자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 사례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2년 이상인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한글과 일상생활 용어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사회복지학과생 1인이 협력리더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A시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들의 출신국은 베트남 31명, 캄보디아 11명, 필리핀 8명, 중국 5명, 일본 2명, 라오스 2명, 네팔 1명 순이다. 배우자와의 만남은 친구나 친척으로 소개로 만난 경우가 32명, 결혼중개업체 21명, 종교기관소개 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갈등대처방식 척도

결혼이주여성의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송말희 [6] 의 척도를 바탕으로 최규련 [6] 이 작성하고, 김혜신 [2] 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갈등이 있으면 친한 친구나 이웃과 상의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외부도움 요청 4문항, 이성적 대처 6문항, 감정 및 행동포출 7문항, 회피적 대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5이다.

2.2.2 자기유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명희·김아영 [22] 이 개발한 기본 심리욕구 척도 중 유능성 척도를 결혼이주여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 한다고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 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이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30이다.

2.3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예술매체는 동작, 음악, 미술, 글쓰기, 만들기, 역할극, 명상 등이다. 각각의 예술활동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는 통합예술 매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예술매체를 통한 신체적인 감각지각을 시각화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언

어적인 표현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23].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창조성을 표현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갇혀있던 영역이 자유로워지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23, 2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예술적 활동과 표현들은 스킬을 배우거나 예술적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술 및 음악매체 등을 통한 창조적이고 다각적인 표현활동을 통하여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의 감춰진 감정과 상처들을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며 치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감소와 유능감 향상을 목표로 초기, 중기, 후기 세 단계로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여러 선행연구들 [1, 2, 21, 23, 24] 과 현장 전문가들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조언을 참조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Table 1> 참조).

초기단계(1회기-2회기)는 집단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단계이다. 1회기에서는 라포형성을 위해 집단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통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손유희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마음열기를 시도하였다. 또 2회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몸동작 및 손동작으로 표현하는 한편, 감정코칭 5간계를 배우고 부부 및 가족 간에 소통하는 법을 익혔다.

중간단계(3회기-6회기)에는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는 단계이다. 5-6회기에서는 음악활동 및 미술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킴으로써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적응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단원들간에 예술활동을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5-6회기에서는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서 외모와 마음 모두를 중요시 하는 멋진 여성으로 성장하는 단계이며, 여러 미술작품을 끝까지 완성함으로써 능력감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거부감 없이 자유롭게 활동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건강한 가족 이미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가족 및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후기단계(7회기-8회기)는 갈등해결 및 변화의 단계이다. 7회기에서는 역할극을 통해 가족간의 갈등상황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갈등해결방법을 공유하였다. 또 8회기에서는 사탕부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결혼식과 결혼생활을 되돌아보고, 결혼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회기별 목적과 프로그램 내용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 및 부부간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전에 집단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변수의 일부 하위요인이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 검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두 집단 간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인 자기유능감과 갈등해결방식의 동질성 검정을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연령, 결혼기간, 학력, 월평균소득과 자기유능감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회피적 대처와 감정 및 행동 표출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Table 2> 참조).

<Table 1> Activity of sessions in the therapy program

Program Overview				
Goal				
1. To lear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establish close family relationship through moving and effective communication				
2. To recover confidence and improve self-efficacy through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music, art, and role-playing				
3. To offer healing experience using an integrative art therapy program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family and social adjustment				
Stage	Session	Goal	Theme	Description
Early	1	To establish close relationship and facilitate communication/catharsis	Mind-opening by activity	Greetings and rapport making Mind-opening by hand motions and recreation
	2		Communication with emotion coaching	Expressing present emotion by motions Learning and expressing emotion coaching(five stages)
Mid	3	To understand self and improve acceptance /self-efficacy	Establishing a positive self-image	Relaxing by music therapy activity Singing a song with optimistic words to remove stress and communicate
	4		Being a woman with self-esteem	Making my mirror Looking for my pretties face(expression) Looking for other's pretty face and praising
	5		Becoming a great woman who manges herself well(appearance and mind)	Learning the importance of self-image management(make-up and dressing) Finding control ways including make-up, hair-styling, expression, wording, and etiquette
	6		Establishing a healthy family image using napkin art	Completing a napkin art work Explaining the work to group members and listening to feedback
Late	7	Conflict resolution/ change	Making healthy family relationship and happy family	Looking in family conflicts by role-playing Sharing feelings and promises between group members
	8		Making happy life by being together	Making a candy bouquet Talking about one's wedding ceremony and marriage life and being reborn as a great wife and a great mother

<Table 2> Preliminary Test of Homogeneity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Variable	Experiment group	Control group	X ² /t	p	
	M (SD/%)	M (SD/%)			
Age(mean)	29.83 (6.70)	31.13 (7.58)	-7.00	.487	
Length of a marriage(mean)	5.169 (3.26)	4.60 (4.56)	.547	.586	
Highest level	Elementary school or less	3(10.3)	5(16.7)	1.741	.628
	Middle school	10(34.5)	6(20.0)		
	High School More than a professional college	11(37.9)	13(43.3)		
income level (10,000 won)	<100	1(3.8)	1(3.4)	2.426	.788
	100-150	1(3.8)	2(6.9)		
	150-200	14(53.8)	11(37.9)		
	200-300	7(26.9)	11(37.9)		
Self-efficacy	300-400	3(11.5)	4(13.7)	-3.48	.729
	rational coping	3.22(.760)	3.34 (.510)		
	evasive coping	2.10(.887)	3.30 (.484)		
	emotional-behavioral expression	2.27(1.01)	2.94 (.438)		
	Outside to ask for help	3.32(.896)	2.83 (.589)		
			3.28 (.369)		

* Missing value is non-response that processing.

3.2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효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에 실시한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된 평균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elf-efficacy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M	SD	M	SD	
Experiment	29	3.299	.690	3.916	.687	3.924
Control	31	3.344	.511	3.512	.516	3.503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사전 자기유능감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사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F= 7.769,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ANCOVA of the post self-efficacy

Source	SS	df	MS	F	p
Pre Self-efficacy group	1.749	1	1.749	5.122	.027
Error	2.653	1	2.653	7.769	.007
	19.466	57	.342		

3.3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효과

3.3.1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이성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간의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들을 공변량으로 설정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이성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된 평균을 살펴보고, 다음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ational coping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M	SD	M	SD	
Experiment	29	3.215	.760	3.836	.953	3.843
Control	31	3.301	.483	3.285	.485	3.278

<Table 6>와 같이 사전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이성적 대처'를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사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F= 8.499,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을 나타냈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이성적 대처’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M=3.836)이 통제집단(M=3.285)에 비해 이성적 대처 점수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ANCOVA of the post rational coping

Source	SS	df	MS	F	p
Pre rational coping	.622	1	.622	1.111	.296
group	4.758	1	4.758	8.499	.005
Error	31.913	57	.560		

3.3.2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회피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회피적 대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된 평균을 살펴보고, 다음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vasive coping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M	SD	M	SD	
Experiment	29	2.097	.887	2.071	.909	2.290
Control	31	2.935	.437	2.968	.634	2.763

<Table 8>와 같이 사전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회피적 대처’를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사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F= 4.920, p<.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냈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회피적 대처’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M=2.071)이 통제집단(M=32.968)에 비해 회피적 대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NCOVA of the post evasive coping

Source	SS	df	MS	F	p
Pre evasive coping	7.087	1	7.087	14.337	.000
group	2.432	1	2.432	4.920	.031
Error	28.177	57	.494		

3.3.3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감정 및 행동 표출에 미치는 효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 및 행동 표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된 평균을 살펴보고, 다음 <Table 9>에 제시하였다.

<Table 9>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motional-behavioral expression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M	SD	M	SD	
Experiment	29	2.267	1.010	2.167	.828	2.285
Control	31	2.830	.589	2.908	.667	2.797

<Table 10>와 같이 사전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 및 행동 표출’을 공변량으로 보정한 후 사후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F= 7.646, p<.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냈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M=2.167)이 통제집단(M=2.908)에 비해 감정 및 행동 표출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 및 행동 표출’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0> ANCOVA of the post motional-behavioral expression

Source	SS	df	MS	F	p
re emotional-behavioral expression	6.470	1	6.470	14.125	.000
group	3.502	1	3.502	7.646	.008
Error	26.110	57	.458		

3.3.4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외부도움 요청에 미치는 효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 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외부도움 요청’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된 평균을 살펴보고, 다음 <Table 11>에 제시하였다.

<Table 1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outside to ask for help

Group	N	Pre-test		Post-test		
		M	SD	M	SD	adj. M
Experiment	29	3.321	.896	3.283	.634	3.279
Control	31	3.282	.369	3.427	.500	3.431

<Table 12>와 같이 부부간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외부도움 요청’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나타냈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M=3.283)과 통제집단(M=3.427)의 외부도움 요청에 대한 점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의 갈등해결방식의 하위요인인 ‘외부도움 요청’에는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12> ANCOVA of the post outside to ask for help

Source	SS	df	MS	F	p
pre outside to ask for help	.855	1	.855	2.715	.105
group	.345	1	.345	1.095	.300
Error	17.957	57	.315		

3.3.5 결혼이주여성의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갈등대처방식 전체에 미치는 효과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부부 간 갈등해결방식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정된 평균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갈등대처 능력을 평가하였고, 다음 <Table 13>에 제시하였다.

<Table 1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Group	N	Pre-test		Post-test		
		M	SD	M	SD	adj. M
Experiment	29	3.417	.443	3.681	.520	3.586
Control	31	3.038	.317	3.199	.318	3.289

<Table 14>와 같이 부부간 갈등해결방식 전체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M=3.681)과 통제집단(M=3.199)의 갈등해결방식의 전체에 대한 점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의 갈등해결방식 전체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4> ANCOVA of the post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ource	SS	df	MS	F	p
pre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2.151	1	.855	13.595	.001
group	.967	1	.345	6.110	.017
Error	7.913	50	.15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부부 간 갈등해결방법 습득과 친밀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밝힘으로써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주여성의 가족 및 사회적응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A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본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고 한국에 거주한지 2년 이상인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실험집단 30명, 통제집단 31명을 무선표집으로 배치하고, 총 8회에 걸쳐 개입하였다. 사전검사는 1회차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이 끝난 지 한 달 후에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유능감에 효과가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은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전에는 큰 차이가 없던 것이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이 현저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봉만 [17], 최애나·강효현 [18], 최애나 [19], 우현정 [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기수용을 가능케하며, 자신감 향상에 효과가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기유능감을 향상하고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중재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부부 간의 갈등해결 방식에 효과가 있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백은영·이명우 [1], 오명선·최외선·우현정 [25], 김수복·우현정 [26]의 연구와 유사하다. 특히 갈등해결 방식의 하위요인 중 외부도움 요청 변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으나, 이성적 대처, 회피적 대처, 감정 및 행동 표출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후 결혼이주여성의 이성적 대처 변인은 높아진데 반해 회피적 대처와 감정 및 행동표출 변인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실시 후 결혼이주여성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늦게 귀가한다거나 따로 생활하는 등 회피적 대응 보다는 더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는 등 감정이나 행동의 표출은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오명선·최외선 [25]의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배우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여 감정적인 대립이 줄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이 부부 간의 의사소통의 패턴을 이해하고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행동변화를 위한 준비와 마음의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성공 경험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여 가족 및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에서는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결혼이주가족 부부는 일반 부부에 비해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이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부부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패턴 및 갈등대응방식의 차이를 파악해보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원활한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결혼이주가족 남편과 아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족 중재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부부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나, 일부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이 효과가 없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갈등대처전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첨가될 필요가 있다. 이 후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활동을 접목하여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REFERENCES

- [1] Eunyoung Baek, Myungwoo Lee, "The Effectiveness of TA Theory-based Conjugal Relations Improvement Program Using Arts Activity".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10, No.2, 199-217, 2014.
- [2] Hyeslin Kim, "A Study on the Family Strength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Korean Men Couples".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1.
- [3] Hyunju Kwak, "A Meta-Regression Analysis of Art Therapy Effectiveness - Focused on Music

- Therapy”, Art Therapy, Dance Movement Therapy and Integrative Art Therapy -,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3.
- [4] Malhee Song,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flict and the Coping Behavior of Urban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Editorial Board, Vol.8, No.2, 31-48, 1990.
- [5] Sunmi Lee, “Gweeyeon Jeon,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Coping Method o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Journal of Korean Housing Association Editorial Board”, Vol.9, No.5, 203-220, 2001.
- [6] Kyureon Choi, “A Study on Types of Family Systems”, Marit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 [7] Eunrok, Son, “The Study on Conflict in International marriage and Solution : On the subject of Choson-jock(Korean-Chinese) Women a married Korean Me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2001.
- [8] Sunhee Park, Juhee Lee, Eunjin Kim,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Improved Relations Between Mothers-in-Law and Daughters-in-Law : Focused on Mothers-in-Law of Multicultural Families Regarding Family Functions and Cultural Acceptance Attitud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9 No45, 911-932, 2014.
- [9] Mina Choi, PyeongSu Yu, “The Effect of the Couple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Based on Gottman’s Theor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1, 79-102, 2014.
- [10] IKju Kim,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Programs on the Social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2013.
- [11] Jungok Kim,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Therapeutic Marital Enhancement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8, No3, 157-177, 2013.
- [12] Soobok Kim, “A Study on Bibliotherapy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for Healthy Marital Relationship”, The Korea Journal of Integrative Arts Therapy, Vol.1, No.1, 61-93, 2011
- [13] Jungmi Ryu, “The Effects of Integrative Arts Therapy on the Improve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perception with Juvenile Delinquents”, The Graduate School in Won kang University, 2006.
- [14] Jongsook Kim, “Theoretical Perspectives of Family Conflic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0(1) : 307-323, 1997.
- [15] Meegung, Song et al., “Development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Par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08.
- [16] Dalahgi Hong,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Family Integration Education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Vol.9, No.1, 75-89, 2010.
- [17] Bongman Kwon, “A study on Sexuality Consciousness, Sexuality Attitude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The Councelling and Welfare of Hanyoung Theology University, 2012.
- [18] Aena Choi, Hyohyun Kang,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upon self-efficacy of broken family child”,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11, No.2, 71-87.
- [19] Aena Choi, “The Effects of Integrated Art Therapy upon Obese Children: Focusing on Self-image, Stress, Self-efficiency, Self-respec”t, The Korean Arts Psychotherapy Association, Vol.9, No.1, 121-138, 2013
- [20] Chayoung Park, “The Effects of Integrative Art Therapy on Interaction Promotion Mother and Child with Developmental Disorder : Focusing on Object Relations Theory”, Department of Art Therapy Won kwang University, 2009.
- [21] Hyunjung Woo, “Effects of Group Piano Playing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Self-Efficacy; A Case Study”,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Vol.7, No.2, 1-22, 2010.
- [22] Myunghee Lee, “Ahyoung Kim, Development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2, No.3, 157-174, 2008.
- [23] Heesuek Lee, "Effects of Integral Art Therapy Programs on Stress Coping Styles and Self-efficacy of Parents having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Kyungsung University, 2015
- [24] Seungyeun Shin, Eunmi Hong, "The Effects of a Group Art Therapy on Communication and Intimacy of Multicultural Couple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7, No.4, 175-197, 2011.
- [25] Myungsun Oh, Waesun Choi, "The Effects of Art Activity in Transactional Analysis for Marital Education Program on Marital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of Married Wome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4, No2, 49-77, 2008.
- [26]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27] Berko, R. M., Rosenfeld, L. E., & Amovar, I. a, "Connesting: A Culture - Sensitiven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2n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0
- [28] Halprin, A, "The expressive body in life, art and therapy-working with movement", *Metaphor and meanig*, Seoul: Sigmappress. 2003.
- [29] Myeong-Hwa Lee, Yoon-Jung Lee, "The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o marriage immigrant wives whose spouse of in an old age : Focusing on Social service and Human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9, 47-62, 2014.
- [30] So-Jeong Park, Yang-Ja Bae, Sun-Hee Park, "Sun-Ae Kim, The Effect on the Marital Satisfaction to marriage immigrant wives whose spouse of in an old age : Focusing on Social service and Human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493-507, 2015.
- [31] Young-Ae Jung, Hyeong-Soo Kim, "A Method of Using Digital Map to Improve Multicultural Education Efficiency : A Design of 'e-Atlas of Society and Culture'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to Overcome Contextual Limit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1, 13-21, 2014.
- [32] Sun-Hee Song, "Mediation Effect of Marriage Satisfaction about Personality Trai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to Affect on Preparing Their Old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2, 49-56, 2016.
- [33] Yong-Kyu Lee, Hyung-Ran Moon, "A study on the path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of Marriage migrants affects to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3, 37-47, 2015.
- [34] Byeong-Joo Jeon, "A Study on N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 An Application of Heater's Theor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4, 33-41, 2014.
- [35] Sun-hee Park,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Stable Marriage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a Cultural Adaptation Attitud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6 No. 1 , 89-109, 2011
- [36] Sun-Hee Park, Ju-Hee Lee, Hyo-Ja An, Won-Tak Cho, "Effects of Parents' Social Network on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in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33, 6. 1. 185-217, 2010

박 순 희(Park, Sun Hee)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동신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사회복지, 가족상담 및 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